

인류세 시대의 경영과 경영학

김광점 카톨릭대 교수

Abstract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공장과 대기업이 있었다. 수많은 기술과 혁신이 이루어졌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인류의 생산-소비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다. '경영'에 대한 고민은 이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고,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제제도와 사회제도 전반이 자본주의 생산-소비 방식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그렇게 인류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문제의 등장과 그에 대한 해결이 있었다. 제국주의 경향, 대공황, 전쟁이 이어졌다.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그 결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의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났다.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60년대 혼란을 극복한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는 '역사의 종언'이 선언될만큼 '시장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유일한 체제로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기술발전은 더욱 가속화해서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에 있고, 인류에 대해서는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등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불거졌다. 오염과 기후위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인류세'(anthropocene)란 표현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경제 성장이 아니라 비경제적 성장(uneconomic growth)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제 지구의 생태계는 더 이상의 성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작은 변화에도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동안 진보와 성장을 추구해왔는데, 그 결과가 후대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경영과 경영학 연구는 근본적 성찰을 해야 한다. 오늘 당면한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생산-소비 방식을 요구한다. 대안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성찰'해야 하고, '반성적 조직학습'을 해야 한다. 2차원적 학습, 학습방법의 학습이 필요하다. 첫째, 거의 신격화된 '시장'을 탈신성화하고, 시장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기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경영과 경영학 연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질서, 살롬의 상태를 달성하는 데 경영이 기여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경영학 연구가 되어야 한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ESG 경영이 Washing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TBL을 달성하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기술과 혁신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셋째, 과학적 실증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가치, 윤리, 영성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영학자는 ‘신학’과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